

권희진

2017년 5월 12일

오늘 내는 3시에 일어났다. 이유는 어제 늦게 자기 때문이다. 아침 일찍 일어나
 공부하려는 계획이 문뜩이 되었다. 그래서 밤먹고 독서실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
 4시간을 읽었는데 공부가 안 되어서 정작 공부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것 같다.
 그리고 공부랑 같이 노권을 갔다. 이유는 원요일날 서연이 새일선물을 주자
 하기때문에 선물을 사러 갔다. 내가 엄마에게 차를 가져가자고 졸랐는데 어
 마가 차를 달 곳이 없어 하가량이 없었다. 그래서 재밌게 쇼핑도 하고
 빵도 3개 사서 집에 왔다. 그리고 너무 빵고 좋아 나눔자 3개 다
 먹었다. 엄마한테 미안하고 다음에 내가 100개 사드려야겠다.
 돈이 없어서 끝내서 오늘 저녁은 공부를 더 할수 있었다. 그래서 내는 공부
 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잘 것이다. 오늘은 재밌는 하루였다.

